9cm 눈에 발 묶인 광주·전남

‘출근길 빙판길’ 낙상·교통사고 잇따라

항공기·여객선도 결항 陸·海·空 ‘꽁꽁’

불과 9cm 눈에 광주·전남의 교통이 꽁꽁 얼어붙었다.

28일 새벽 광주·전남에 폭설이 쏟아지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내려가면서 도로가 결빙, 출근길이 큰 혼란을 빚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 등은 새벽부터 비상 인력을 가동해 제설작업을 펼쳤지만 출근 차량은 평소보다 절반 이하 속도로 서행해야 했다. 항공기와 여객선의 결항도 속출하면서 육지·바다·하늘이 모두 막혔다.

◇출근길 거북이 운전=눈은 이날 새벽 6시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광주시 등은 출근 시간 이전에 제설작업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고, 시내 곳곳은 거북이 운전을 하는 차량으로 뒤덮여 꽁꽁 막혔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2배 더 걸렸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급히 제설차 24대와 96명을 동원해 빛고을로·무진로·동운고가도로·효덕지하차도 등 111개 도로 203km 구간에 염화칼슘 1천900여포대(포대당 25kg)를 살포, 오전 9시 이후에는 도로 대부분이 제 모습을 찾았다.

전남도도 이날 새벽 6시부터 제설차 128대와 332명의 직원을 동원해 모래 309㎥와 염화칼슘 8천950포대를 뿌렸고, 오전 9시께 작업을 끝마쳤다. 하지만 골목길이나 일부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근길 도민들이 애를 먹었다.

◇항공기·여객선 결항 잇따라=28일 광주·전남에서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24.6m(완도)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하늘과 바닷길도 대부분 막혔다. 광주공항의 경우 광주~김포 노선(오후 1시20분) 등 4개 노선이 결항됐고, 광주~김포 노선(오전 10시) 등 7개 노선이 지연됐다. 목포 공항은 서울~목포 노선(오후 12시15분) 등 2편이 결항됐다.

여수항을 기점으로 하는 13개 항로 17척의 여객선 중 여수~제주 항로 1척을 제외한 모든 배의 출항이 통제됐으며, 목포항도 전체 22개 항로 30척 중 19개 항로 25척의 운항이 취소됐다. 또 2만여 척의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전남 연안 항구와 포구에 대피했다.

◇교통사고·안전사고 잇따라=낙상과 교통사고 등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장성군 남면 농협 앞 도로에서 원모(70)씨가 빙판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

앞서 오전 6시50분께 순천시 서면 학구리 17번 국도에서 전북 정읍에서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석모(37)씨의 1t 화물차가 이모(61)씨의 1t 화물차와 부딪치면서 뒤따르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 모두 5대의 차량이 충돌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촛불의 밤’

28일 오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청각·언어 장애우, 국제결혼가정 등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제9회 촛불의 밤’ 행사가 열렸다. 〈관련기사 20면〉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檢 “변호사 소송 승패율 공개 무혐의”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인맥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 사이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3월 인터넷 법률사이트인 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사건수임 및 처리내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일반인도 분석 가능하므로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승소율 분석을 통한 순위 공개도 ‘하위 50%’ 식으로 그룹화해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국 변호사의 약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는 로마켓이 변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올해 3월 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개인정보 인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전문성 지수와 인맥지수, 승소율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大法 “거짓말탐지기 결과 공개해야”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폭행 사건 피해자측 소송대리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리생리검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환급사기 사건’ 공범 1명 검거

광주 동부경찰

환급사기 사건〈본보 12월28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은 28일 붙잡힌 일당의 공범 김모(36·경북 구미시)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중순께 나모(48·검거)씨 등과 함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강모(여·23)씨의 집을 찾아가 한국교육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가 최근 ‘특별보급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하면 2주 뒤 많게는 구입비용의 2배 가까운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강씨를 속여 8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건네 받는 등 모두 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일당이 5~6명 더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목포와 충북·경북 등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여수산단 구조적 비리 확인

검찰, 건설사 현장소장 등 3명 구속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토목 공사를 둘러싼 원청 및 하청업체의 비리 사건과 관련, 건설사 현장소장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모두 19명이 형사입건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6개월 동안 진행해 온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모 건설사 현장소장 K(51)씨는 하청업체들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9천만원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고, 협력업체 대표 B(60)씨도 허위 공사대금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공금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또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돈 14억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모 업체 대표 J(4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의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여수산단 내 임직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명은 지명 수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현장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 해이를 적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여수산단 뿐 아니라 관내 기업체들의 비자금 조성과 그로 인한 조세포탈 및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버스 노선 원상복귀”

양동시장 상인들 시위

양동시장 상인 40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 시청 앞 미관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상인들은 “지난 21일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된 이후 양동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이 19개에서 10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30~40%가량 줄었고 매출이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양동시장역의 지하철 승객이 노선개편 이후 80% 가량 급증했다”며 “3월까지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으로 운행해 본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주유소 강도 2명 검거

광주 서부경찰은 28일 주유소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박모(26·충남 예산군 오가면)씨와 정모(29·목포시 옥암동)씨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27)씨 등 3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2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G주유소 사무실에 침입, 종업원 이모(56)씨를 폭행하고 이씨의 몸을 테이프로 묶은 뒤 수표와 주유 상품권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특수학교 前 교장 입건

광주 남부경찰은 28일 전 이사장이 기탁한 학교 발전기금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광주 모 특수학교 전 교장 김모(60)씨와 전 행정실장 김모(58)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민정기자 viola@

車 저당 50대-전당포 주인 ‘주먹질’

쌍나팔

○…전당포에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린 50대가 20개월 뒤 차를 찾으러 갔다가 전당포 주인과 이자 문제로 말다툼 끝에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여모(51)씨는 27일 오전 10시50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J전당포에서 주인 서모(32)씨와 “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을 휘둘러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정이 급해 쓰던 차까지 맡겼고, 택시 운전으로 1년 8개월 만에 어렵게 돈을 마련해 찾아갔는데 이자를 더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